



이틀 새 21명... '5월 위기론' 현실되나

대학 운동부·일가족 등 3~4일 코로나 연쇄 확진 올해 들어 1일 확진자 최다... 도 "가족모임 자제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하루 사이 13명이 감염되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13명(725~737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5일 1명(738번)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들어 하루 확진자가 13명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1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또 올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1일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 특히 5월 확진자 24명 중 90%가 넘는 21명이 지난 3~4일 이틀 사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해 방역 격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13명 중 6명(725~730번)은 제주국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레슬링부 선수들이다. 이들은 지난 3일 확진된 719번의 접촉자로, 719번을 포함해 총 18명이 제주에서 합숙 훈련 중이었다. 나머지 11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791번과 접촉해 확산됐는지 등 최초 감염자가 특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731~732번, 734~735번, 737~738번 등 6명은 도민이다. 이중 731번과 735번, 737번 등 3명은 '721번 일가족 발' n차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731번은 지난 4일 확진된 722번과 접촉한 이력이 있다. 이 가운데 722

번은 같은날 양성 판정을 받은 721번의 가족으로, 721~722번을 포함해 나머지 가족 2명(723~724번) 등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다.

여기에 724번과 접촉한 735번, 또 735번의 가족인 736번까지 확진돼 721번 일가족을 통한 n차감염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또다른 도민 확진자인 732번은 지난달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699번과 접촉했다. 732번은 자가 격리를 이어오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의

심 증상을 보였다.

734번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734번은 지난달 29일부터 몸살과 함께 미각을 느끼지 못하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3일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튿날 확진됐다. 이어 734번의 가족인 738번도 다음날 확진됐다.

나머지 733번과 736번은 다른 지역 출신이다. 733번은 지난 1일 경상남도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왔으며 경남 지역의 한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기 위해 지난 4일 제주 동부보건소에서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다. 736번은 3월부터 제주살이를 하다 확진된 718번과

함께 거주하는 이로,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5월에는 공휴일이 많아 행사·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에는 4월 이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족 모임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확진자 이동동선으로 잡힌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 '배두리광장',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전원콜라텍', 제주시 연동 소재 주점 '파티24'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위기의 5월... 복직이선 선별진료소 지난 3일부터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유일인 5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렌터카-트럭 등 4중 추돌 9명 다쳐

제주시 서사라사거리 인근에서 4중 추돌사고 발생해 9명이 경상을 입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서사라 사거리 인근에서 렌터카가 1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돌당한 트럭은 전도됐고, 렌터카는 이어서 직진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렌터카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중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렌터카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렌터카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기기자

성매매 경찰관 중징계... 신분은 유지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과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

등·정직 처분으로 알려졌다.

A경찰은 지난해 1~5월 도내 모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공사현장 안전신포등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포등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신포등제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 상황을 등급에 따라 녹색, 노란, 빨간색으로 구분한 것이다. 산업재

해 감소와 발빠른 대처를 위해 이같은 제도가 도입됐다.

공사 현장에 안전점검 상 이상이 없으면 초록불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있거나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곳은 불량을 뜻하는 빨간불로 표시된다. 또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점검 주기에 맞춰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선 노란불이 켜진다.

이상민기자

선박 화재... 5000만원 피해

지난 4일 오후 7시48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갈치잡이 어선 원과 수협 직원에 의해 진압됐다.

이 화재로 A호에 있던 무전기

와 선진화, 어군탐지기, 조타기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A호 간이 휴게실 바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과 연관성 없다”

질병관리청, 제주 사망자 2명 불인정 결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도민 2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A(79)씨와 B(90·여)씨의 사례를 심의한 질병관리청은 이들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

으며 다음날인 22일 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자정 사망했다.

B씨는 지난달 14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으며 닷새 뒤 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 여부는 역학조사와 의료진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병관리청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상민기자

학원강사 확진 신제주권 학교 '비상'

일부 학생 등교 중지... 학교 중간고사는 진행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가 학교에도 미치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확진자 발생에 따른 효돈초 병설유치원 전체 원아 대상 원격수업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하루 창천초병설유치원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수업(전체 원아)으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지난 3일 확진된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종합학원 강사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등교중지된 중학생도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밀접 접촉 학생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교내 소속 학생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지만 중간고사 마지막날인 학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고, 고사 종료 후 급식없이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는 등 중간고사 일정을 소화했다.

오은지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745-8900, HP: 010-9258-7508

감굴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을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하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굴(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